정읍 황토현에 전국 최대 동학혁명기념공원 조성

문체부·동학혁명기념재단 370억원 투입…사업 착공 묘역・추모관・전시관・야외캠핑장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동학농민군의 최초 승전지인 정읍 황토현에 전 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이 조성된

28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따르면 문화체육 관광부와 기념재단은 우리나라 최초 근대 민주주 의 운동이자 민족주의 운동이며, 항일구국 의병활 동으로 확대된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국 가사적 295호인 황토현 전적지 일원에 전국 최대 규모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을 조성하기로 하

기념공원은 총 면적 30만1329㎡에 사업비 370 억원을 투입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묘역과 무명 동학농민군의 넋을 기리는 추모관, 동학농민혁명 의 역사를 연구·교육하는 연수동과 전시관, 야외 캠핑장, 각종 편의시설 등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 로 건립·조성된다.

특히, 기념공원 중앙에는 90개의 '울림의 기둥'

이 설치된다. 이 기둥은 제2차 동학농민혁명 당시 전국 90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 는 것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전북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반일구국 의병전쟁으로 확대·전개된 역 사적 위상을 담아 설계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3월 '동학농민혁명 참여 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지 16년 만에 첫삽을 떴다.

문체부와 기념재단은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 명 기념사업의 기반 구축 및 확산을 위해 기념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재원 마련을 못해 지지부

지난 2017년 특별법 개정으로 국비 지원 및 국• 공유지 무상 양여 등이 가능해지면서 사업에 속도 를 냈고, 최근 사업 착공에 들어갔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관계자는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공원은 동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는 민



최근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 착공한 전국 최대 규모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전경.

족·민주·항일 운동의 성지이자 역사와 문화, 관광 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공간이 될 것"이라며 "역사 적 가치를 높이고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무장기포' 수록 한국사교과서 봉정식



고창군은 지난 27일 126년 만에 한국사 교과서 전 체에 '고창 무장봉기'가 수록된 것을 기념해 선열들 에게 교과서를 봉정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

고창 무장면 무장기포지에서 열린 이날 한국사 교과서 봉정식(문서나 문집류를 삼가 받들어 올 림)에는 유기상 군수와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유족회 회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무장포고문 낭독, 무장기포가 수록된 한 국사 교과서 봉정, 헌화 및 분양 등의 순서로 진행

2020년 새학기부터 사용되는 고등학교 8종의 한 국사교과서(2019년11월27일 검정) 전체에 고창 무장봉기(무장기포)를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됐다. 이는 동학혁명의 발상지가 고창이라는 국민 의식 변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고창 일반산단 식품기업 첫 유치…1500억대 투자

닭고기 업체 동우팜투테이블과 협약 20개사 유치 농식품 전문산단 육성

고창군이 고수면 봉산리 일반산업단지에 1500 억원대 투자유치 성사를 기회 삼아 공격적 투자유 치에 나선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군은 닭고기가공업 체 ㈜동우팜투테이블과 고창일반산단에 15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고창군은 지난해 말 일반산단 유치권 해소 이후 산단의 첫 기업 투자인 동시에 '농생명식품산업육 성' 관련 1호 식품기업 유치다.

고창군은 수개월 전부터 지역 내 식품기업 유치 를 위해 식품업체와 접촉을 시작했고, 악취·수질 등 예상되는 문제들을 가정해 전략을 세웠다. 특히 고수지역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한 '고수면 고창 일반산업단지 민간대책위원회'와 함께 기업체는 물론 선진적 폐수처리시설을 갖춘 곳을 방문해 주 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

㈜동우팜투테이블도 신설하는 고창공장을 최첨 단 악취저감 친환경 시설, 폐수처리시설의 지하화 도입 등을 약속했다.

고창군은 이번 투자유치로 650명의 일자리 창출

고창군은 기업유치 성공사례를 통해 앞으로 고 창일반산단을 농식품 전문 산업단지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 곳에 20개 기업을 유치해 2000 여명의 일자리 만든다는 목표다.

고창은 산, 들, 바다, 강, 갯벌이 모두 있어 신선



고창군과 ㈜동우팜투테이블은 지난 23일 전북도청에서 1500억원 규모의 고창일반산단 투자협약을 체 결했다. 〈고창군 제공〉

한 원재료 조달이 쉽다. 또 수박, 복분자, 멜론, 고 구마, 땅콩 등 특화작물이 재배되면서 '특별한 맛' 을 선보이려는 식품기업들의 테스트베드의 최적지

고창일반산단은 고속도로 나들목 3곳(선운산, 고창, 남고창)이 인접해 교통이 편리하고, 광주·전 주 등 대도시 소비처가 가까워 식품산업의 최적지

고창군은 기업인과 근로자, 지역 주민을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고창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체 육센터'를 건립한다. 체육센터는 내년 준공을 목표 로 체육관, 작은 도서관, 작은 목욕탕, 일자리센터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고창일반산단에 투자를 결 정한 ㈜동우팜투테이블에 고창군민의 마음을 모아 환영한다"며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과 같이 하는 투자'가 되도록 매순간 진심을 다해 행정 지원에 나 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읍시·국립축산과학원 축산현장 실증시험 '맞손'

정읍시가 축산업 경쟁력 높이기에 행정력을 집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시는 축산 시험연구 신기 술 실용화 촉진과 확산을 통한 축산경쟁력 향상을 위해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과 지난 27일 업 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국립축산과학원이 주관하는 축산현장 실증 시험 선정과제에 2개 농가가 최종 선정되면서 이뤄 진 협약이다. 이번에 선정된 현장 실증시험은 돼지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 기술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 감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벼와 이탈리안 라 이그라스(IRG)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성 향상기술 등 2개 과제다.

정읍시는 협약을 통해 축산분야의 선도적 기술 개발과 신기술 적용을 통한 축산분야 경쟁력이 향 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5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축산 현장 실증시험은 돼지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 술 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과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 벼와 IRG 작부체계 조사료 생산성 향상을

돼지의 고온기 스트레스 저감기술 투입을 통한 생산비 절감 기술은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와 각종 질병 발생 증가로 인한 생 산성 감소의 문제점 개선을 목표로 한다.

저단백질 사료 급여와 비테인 첨가를 통한 도체 특성 효율을 개선해 고온기 비육돈 생산성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양 기술을 실증한다.

또 드론을 활용한 조생종 벼와 IRG 작부체계 조 사료 생산성 향상 기술사업을 통해 노동력 절감을 통한 생산성 개선에 나선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본격화 군산시, 2024년까지753억원 투입

군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주관 공모로 선정 된 '해신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해신동은 군산의 대표적 수산물 도소매 밀집지 역이다. 하지만 시설물 노후와 주차장 협소, 위생 환경 열악 등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군산시 는 수산물센터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침체된 상권 과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총 사업비는 총 753억8000만원으로, 오는 2024 년까지 5년에 걸쳐 투입된다. 마중물 사업(뉴딜사 업)으로 250억원(국비 150억원, 도비 25억원, 시 비 75억원)을, 부처협업 사업으로 330억8000만원 (지자체 155억원, 민간투자 3억원, 기금 15억원) 을 투입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해산물 융·복합 클러스터, 문화 클러스터 조성, 폐철도·해망굴을 활용한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사업 등이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 계 획이 전북도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최종 심의를 통 과해 고시 등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긴 수명, 물에 강하고, 불에 타지 않고,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 데크의 세대교체, 친환경 세라믹 데크!!









시민이 찾는 데크 길, 그러나 이런 문제가 … 습기에 의한 부식, 곰팡이 발생 등으로 파손 안전사고 걱정

品人工工工工 机三八五?





이러한 문제점을 획기적으로 해결한 세라믹 데크 탄생!! 시멘트, 규사, 펄프, 섬유를 원료로 압출성형

친환경 세라믹 데크는 수명이 다하면 재생골재로 재활용됩니다.





"사람과 자연의 생명가치를 존중하는"

천안공장: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4(오목리9) TEL (041)622-0118 FAX (041)622-0851

담양공장: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무정농공단길 3-15 TEL. (061)882-7788 FAX. (061)882-7789

http://humanent.kr A/S: 070-4649-6210

지역협력사 모집 중